

성명서

원칙과 약속을 무시한

무차별 선거운동에 대한 경고

2만 5천 조합원의 큰 잔치이자 축제인 제11대 KT노동조합 위원장 및 지방본부 위원장 선거가 이제 불과 5일도 남지 않았다. 중앙선관위는 그 동안 본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루어지기 위해 노동조합의 규약 및 규정과 선거지침에 의거하여 각 후보진영간 상호비방과 흑색선전, 불필요한 과열양상을 막기 위해 힘써왔다.

특히 각 후보진영간 정정당당한 경쟁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18일 각 입후자 전체 선거대책본부장 회의를 개최하였고, 이 날 각 후보측은 사내메일이나 SMS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할 것을 동의하였고, 동시에 중앙선관위는 본 선거에 따른 ▲사측의 지배개입 금지 ▲불법유인물 배포 및 후보자간 근거없는 상호 비방 ▲외부세력 동원 금지 등을 금지하는 성명서를 지난 11월 18일 발표하였다.

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일부 후보측에서 사내메일과 SMS를 통한 선거운동을 이어왔고, 이에 중앙선관위는 11월 22일 이들 후보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내린 바 있다. 그러나 최근 선거가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선거규정 위반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본 위원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.

이에, 본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위해 선거관리 규정을 엄정하게 적용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 후보 진영에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.

첫째, 각 후보진영은 이제부터라도 선거관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,

둘째, 본 선거가 조합원 모두가 참여하는 노동조합과 조합원들만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.

셋째, 공정한 선거업무를 위한 선관위 업무방해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.

본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후 각 후보진영의 선거관리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 될 경우,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 낼 것임을 다짐하며, 우리 2만 5천 전체 조합원의 이름으로 각 후보진영에 이를 엄중히 경고한다.

2011.11.25

KT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

